

Fast Retailing Sustainability Report 2021

OUR PATH TO A POSITIVE WORLD

긍정적인 세상을 향하여



특별대담

자크 아탈리

사상가·경제학자·미래학자

야나이 다다시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

대표이사 겸 사장

- 03 FAST RETAILING WAY
- 04 지속가능경영 스테이트먼트
- 05 머리말
- 06 [특별대담]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
-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지원활동
- 16 사람중심경영에 관한 7가지 질문
- 18 세계와 함께 한 패스트리테일링의 20년사
- 22 세상을 바꾸는 Z세대
- 2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
- 26 유니클로 옷의 새로운 여행
- 28 지구를 생각하는 옷
- 30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스포츠
- 32 난민이 말하는 인생과 꿈
- 34 세계로 확대되는 사회공헌활동
- 36 윤리적인 기업지배구조

FAST RETAILING WAY

옷을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 나간다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은

정말 좋은 옷,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지닌 옷을 만들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공헌하고,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합니다.



옷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좋은 옷을 만들고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좋은 옷은 심플하면서도 품질이 좋고, 오래 입을 수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고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옷은 건강과 안전,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고객들과 함께 행동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사회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6가지 중점 영역

우리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6가지 중점 영역을 선정하여, 각 영역에 맞는 책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제품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
- サプライ 체인의 인권 존중 및 노동환경 개선
- 환경에 대한 배려
- 지역사회와의 공존공영
- 직원의 행복
- 윤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머리말

패스트리테일링은 세계 각국에서 8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두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옷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지속가능성은 우리의 사업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활동과 정책을 통해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단순히 고객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류 사업(옷과 서비스)을 통해 사회를 지탱하는 인프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객과 사회와 함께 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사업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Sustainability Report의 방향성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Sustainability Report 2021은 이러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호 특집은 자크 아탈리와 야나이다 다다시의 특별 대담입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Z세대와 꿈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난민, 스포츠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스웨덴 올림픽 위원회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세상 속으로 연대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UR PATH TO A POSITIVE WORLD

Jacques Attali
Tadashi Yanai

자크 아탈리

사상가·경제학자·미래학자

야나이 다다시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

대표이사 겸 사장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

10년 전 저서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예측하고 이를 경고했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최근 발표한 책에서 인류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생명경제'와 '이타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웃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파리와 도쿄를 연결하여 2시간 동안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생명경제’와 ‘긍정적 사회’

아탈리 야나이 회장님과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야나이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파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순간 인류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탈리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도 중요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자세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정치가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을 낮추고 있지 않는지,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타당한지, 비주류 공동체에 대한 대응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생태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정치적인 측면까지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다음 세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저는 그러한 사회를 ‘긍정적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나이 얼마 전에 출간된 「생명경제로의 전환」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는 ‘생명경제’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건강과 교육, 위생, 식량, 농업, 클린에너지 등의 분야가 다음 세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탈리 그렇습니다. ‘생명경제’를 중시하는 사회는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긍정적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옷이 ‘생명경제’에 포함된다면 지속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오래 입을 수 있으며 건강과 위생까지 고려한 옷이어야 합니다.



이 대담은 2020년 10월 14일과 20일, 2회에 걸쳐 아탈리 박사의 사무실과 패스트리테일링 아리아케 본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진행했습니다.

금방 버리게 되는 옷은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연과 인간을 존중하는 옷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야나이 코로나19가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면서 옷에 대한 요구도 분명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보다 쾌적하고, 건강에도 좋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옷이란 어떤 옷일까요? 소재와 제조 과정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보다 나은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작은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옷이 한층 더 중요해지겠죠.

아탈리 다음 세대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과 미래의 인류는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나의 행동이 생명경제의 일부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나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연대하고, 산업의 본질을 바꾸고, 옷도 바뀌어야 하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분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탈리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세계 각지의 분쟁 모두 심각한 리스크이며 먹구름처럼 상공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구 경기를 하듯이, 상대의 전력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이해한 후에 시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와 존중을 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부르게 적대감을 가지는 대신 관계 복원을 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타주의를 문제해결의 원동력으로

야나이 내 나라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혹은 나와 주변밖에 보지 않는 편향적 사고 방식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분쟁이나 충돌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벽을 세우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자국의 문화만을 중시하는 편협한 세계관에 빠지게 됩니다. 편협한 세계관은 긍정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팬데믹이 발생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긴급 상황인데도 연대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역사적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가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과거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과거에 대해 무지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면, 현재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탈리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인류의 분쟁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예측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종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기 상황을 겪고 이에 따른 파멸을 경험해야만 인류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시각은 너무 비관적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파멸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것이야말로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믿고, 세상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적 사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와 자연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타주의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 시작점이자 원동력입니다.

야나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행정기관이라는 생각이 오래 전부터 일본인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윗사람’이 판단하고 해결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기업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의 판단과 지시를 기다리다 보면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시작하는 편이 빠르고 보다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탈리 스스로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힘과 입지를 갖춘 기업이 긍정적 사회의 리더가 되어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바로 긍정적 회사인 거죠. 지금부터는 기업 중심의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패스트리테일링이 이러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이타주의를 채택한 긍정적 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주주는 해당 회사가 긍정적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투자자는 긍정적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기업에 용자를 제공하는 은행은 이타주의적 회사에 용자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점차 사회 곳곳으로 확대되며 주위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갈 것입니다.

세상과 공유하는 원칙을 만들 수 있을까

야나이 이타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타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탈리 이타주의가 행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원칙을 성공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유럽연합이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유럽연합 각국이 힘을 모아 공동의 원칙을 만들고자 한 거죠. 유럽연합에 소속된 인구가 약 4억 5,00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류의 10분의 1 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만 공동의 원칙을 가짐으로써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이 글로벌화되면 각각의 사고방식과 진행방식에 대한 글로벌화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개방적인 시장은 상품의 글로벌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제도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패스트리테일링과 경쟁업체가 함께 모여서 원료의 취급과 노동 환경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이를 공유하는 원칙을 만들어서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솔선수범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나이 저는 원칙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어패럴 기업만 모인다고 해도, 관련 산업에서 계속 이어져온 기존의 견해가 반영되고 결국 자신들의 권리만을 지키려 하지 않을까요? 일본인은 정해진

틀에서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원칙을 정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인은 ‘윗사람’의 감독과 지도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목표나 조건을 안에서 노력하지만 하면 머리 아파게 직접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부도 기업을 보호하며 사업을 장려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궤도를 수정할 수 없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유와 종신고용

야나이 프랑스에서는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탈리 역시 세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율은 유럽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민들도 불평등을 해결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세율이 높습니다. 대신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높은 세금은 이타주의의 시스템화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반영한 원칙입니다. 반대의 국가가 미국입니다. 세율이 낮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 문제에 있어서는 제품에 대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수출입과도 관련된 문제이므로 하나의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죠. 특히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나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제적인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나이 보호주의와 집단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지의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한다는 기본 전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원칙을 정하고, 모두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세금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재원이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탈리 프랑스는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9명입니다. 일본은 1.4명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평균 이직 기간이 3 ~ 5년입니다. 평생에 걸쳐 교육과 훈련을 받고 능력을 키웁니다. 축구로 예를 든다면, 팀이 중요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적을 통해 활약할 기회를 넓힘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직업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평생에 걸쳐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찾아발전시키는 일은 사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유연함을 갖춘 사회는 월급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장까지 제공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개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은 결국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야나이 아탈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종신고용제도가 이미 역할을 다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적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J. Attali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

프랑스의 여러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10년간 프랑스 야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특별고문으로 활동했다. 기아대책기구, 유레카, 유럽부흥개발은행, 포지티브 플래닛 등 4개의 국제기구를 설립했다. 포지티브 플래닛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2개국어로 번역된 80 권 이상의 저서를 발표했으며 총 발행부수는 1,000만부가 넘는다. 프랑스 경제지 「레 제코」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며, 정치 및 경제,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은 유럽의 대표 지식인이다.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종신고용이 회사에게 있어서나 개인에게 있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적을 반복하는 개인이 잠시 모이는 곳이 된다면 집단지식이나 암묵지식 등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집니다. 일한다는 것,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 깊어짐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 발전하고 회사를 받쳐주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항상 곧바로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목적과 회사의 목적이 일치하여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최고의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요? 축구에서 협동작전을 펼치듯이 모두가 골인을 목표로 경영자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종신고용에 대한 생각은 유럽인 으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아탈리 야나이 회장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유럽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인 중에도 종신고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라고 보는 시각이 세계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생 소비자’라는 개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야나이 평생 소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가능할 수 있는 기업활동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겠죠. 소비자에게도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신고용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무조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뿐인 종신고용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축적된 지식이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종신고용의 저력이 발휘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활동은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보니 최근 공교롭게도 프랑스인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탈리 세계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인도 프랑스에 더 많이 와서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야나이 개인이 자유롭게 살면서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아탈리 21 세기가 요구하는 기업, 또는 어패럴의 미래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mbating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지원활동

패스트리테일링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국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26개 나라 및 지역의 의료기관,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의료용 가운(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호복), 유니클로의 기능성 속옷인 에어리즘과 히트텍, 이너웨어 및 아우터 등의 의류를 지원했습니다. 방호복이나 가운 안에 에어리즘을 입었더니 땀이 차지 않아서 의료종사자의 육체적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클로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나 스포츠 관련 단체, NPO 등과 협력하여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기부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고객] 매장 내에서는 계산대나 피팅룸 앞에서 안전거리를 지키며 줄을 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은 근무 전에 체온과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양치질,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철저하게 매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매장이 국가 및 지역 당국의 정책에 따르고 있으며 일부 매장은 임시 휴업 혹은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필요한 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나라 및 지역 상황에 맞춰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생산 파트너] 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업무에 따라 재택 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 직원의 안전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은행 그룹 국제금융공사(IFC)의 공동 프로젝트 <Better Work> 와 제휴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생관리(공장 출입 시 손씻기 및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를 강화하고, 공장이 휴업을 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협력업체에 대한 재정안정지원대책으로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의거하여 대금 지불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역사회 지원(2020년 11월 27일 기준)

마스크	16,730,000 장	에어리즘 마스크	602,575 장
의료용 가운	약 1,430,000 벌	기능성 속옷 에어리즘	470,683 벌
의류 기부	524,513 벌	재정 지원	약 260,000 달러



Putting People First

사람중심경영에 관한 7가지 질문

패스트리테일링은 옷이라는 필수품을 통해 보다 나은 일상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객 및 직원,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심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Q.1 인권존중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엔의 사업 및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인권존중의 책임을 이행하며, 해당 업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핫라인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대응에 있어서 조언과 권고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권 감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특정 문제에 대한 사전방지대책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2 협력업체 공장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협력업체 공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항목을 명시한 <생산 파트너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를 패스트리테일링의 공식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FR 그룹의 직원이 협력업체 공장을 방문하여 함께 개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공장이 행동강령 또는 최신 근로환경기준을 올바르게 인지하도록 22개 나라 및 지역의 공장 489곳(2020년 기준)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Q.3 여성직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커리어를 지속하면서도 가족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FR 그룹에서는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성별에 따른 무의식적 편견을 타파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FR 그룹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39.2%(2020년 8월 기준)입니다.



Q.4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고객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계 각지의 유니클로 및 지유(GU) 매장에 1,000명 이상의 장애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 장애인 고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후, 적극적으로 고용 정책을 실시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클로는 옷을 입고 벗기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프론트 오픈 이너'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5 난민 고용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니클로는 거주권을 취득한 난민과 가족의 고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세계 각지의 매장에 난민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일본 63명, 독일 11명, 프랑스 28명, 이탈리아 7명, 미국 6명, 네덜란드 3명, 스웨덴 2명, 영국 1명). 함께 근무하는 점장과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실시하고 난민 직원들 간의 교류를 장려하며, 난민 직원이 유니클로 매장에서 보람을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6 성소수자(LGBTQ+) 직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성 정체성에 관한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파트너십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동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 이를 등록하면 경조사 관련 휴가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보 「다이버시티 통신」 발행, 네트워크 그룹 <심포니>의 사내영화 상영,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등의 활동을 기획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Q.7 제품 및 매장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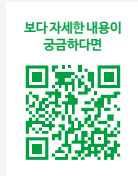
유니클로는 해당 나라와 지역의 고객 센터 및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을 개발 및 개선에 활용하고, 관련 내용을 유니클로 공식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일부 나라에서 많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에어리즘 마스크'를 출시했습니다. 불만사항은 우선적으로 담당 부서와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도 만족도는 96%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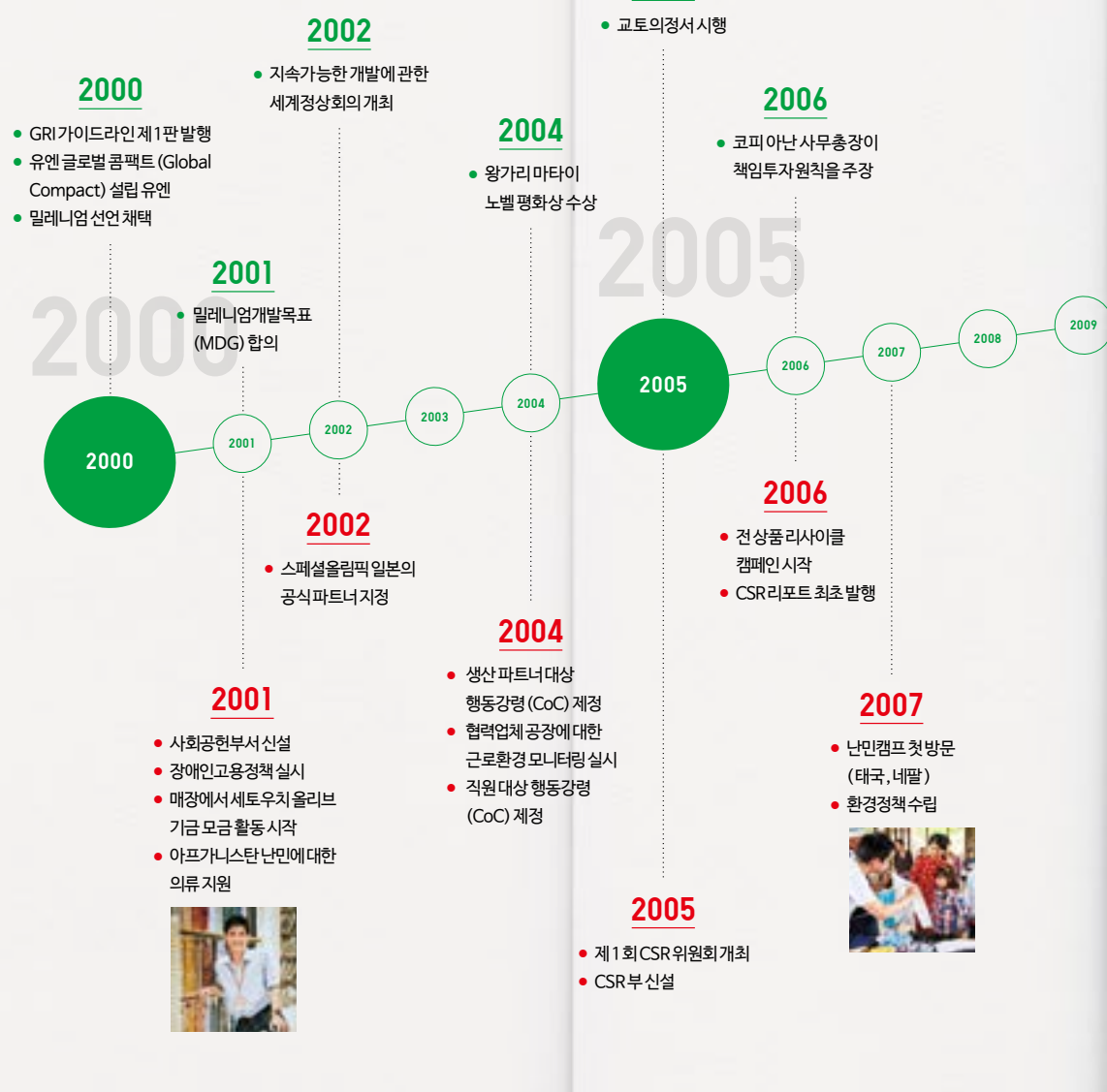
20 Years of Sustainability Progress

세계와 함께 한 패스트리테일링의 20년사

20년 전 유엔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면서부터 세계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전을 거듭했습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사회공헌부서를 신설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역사와 함께 한 우리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20년사



패스트리테일링 20년사



Gen Z: Changing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Z세대

환경의식이 높고 정보 공유에 적극적인 Z세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최신 테크놀로지를 접했고, 세계 각지에 사는 같은 세대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이번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의 Z세대 두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5가지 질문]

- ① 본인의 활동을 해시태그 3개로 표현한다면?
- ②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③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④ 50년 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 ⑤ 세계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카쿠라 요우타, 주식회사 이노카 대표이사 CEO (26세)

① #공생 #테크놀로지 #산호

② 2019년 '사람과 자연이 100년 후에도 공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이념으로 회사를 창업했고,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생태계를 육지에서 재현하는 환경이송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호초 생태계를 소재로 한 환경 교육, 환경 보전 관련 공동 연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기업사업개발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유유출 사고가 일어난 모리셔스의 환경 복원에도 참여했습니다. ③ 기르던 물고기와 산호가 죽었을 때, 병명조차 모른 채 당황했던 경험. ④ 누구나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생관계를 구축하면 다양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난치병의 치료법을 찾고, 화성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⑤ 지적 호기심이나 사랑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감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나카 미유, 산요학원 중·고등학교 지리역사부 부장 (18세)

① #해양쓰레기 #SDGs #협동



② 지리역사부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36명이 세토내해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Gs의 관점에서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저 쓰레기와 섬의 표류 쓰레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하며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바꾸어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으로 산업계와 관공서, 학계, 시민 등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2019년 독일에서 개최된 유엔 주최 SDGs 국제회의에서 관련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해양쓰레기 걸즈'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③ 지리역사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듣고 가입했습니다. ④ 해양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 동식물이 진정한 의미로 공존하는 사회로 되돌아가면 좋겠습니다. ⑤ 정치 및 법률, 경제,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구에서 일어난 문제를 '나의 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Caring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

패스트리테일링은 품질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면서도
쓰레기를 줄여서 순환경계를 실천하고 자원 효율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업체 등과 제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패션업계 현장에 서명

패스트리테일링은 2020년 1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패션업계 현장에 서명했습니다.
이 헌장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2°C 미만 (가능한 1.5°C 미만) 으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등, 패션업계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01 | 02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면화 농가를 대상으로 물과 농약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NGO (Better Cotton Initiative)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레이온 소재의 조달에 있어서는 원료공장까지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 사용

유니클로의 DRY-EX 폴로 셔츠와 플러피안 후리스 풀집 재킷은 회수한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 폴리에스터를 소재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섬유 업계에서 설립한 (ZDHC Group) 에 가입하는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 제로 배출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소재 공장의 배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

유니클로의 주요 소재 공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가공 공정에서의 물 사용량 절감

진 제작용 마무리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최대 99%* 절감하고 물 한잔 정도의 적은 양으로 동일한 품질의 진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FR 그룹의 모든 브랜드에 이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대책

「마이크로파이버 컨소시엄」 등, 섬유업계를 넘어서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 해결을 목표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3

매장 조명 LED 교체 및 태양광 패널 설치

유니클로 일본은 매장 조명 93.8% 를 LED로 교체하여,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8.7% (2013년 대비, 단위 면적당) 감축했습니다. 유니클로 대만은 타이난 원시안로점 등 3개 매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매장 및 사무실 설계

세계 각지의 매장 및 사무실에서 에너지 절약형 조명과 에어컨을 사용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매장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류 효율 향상

접이식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배송을 위한 종이 박스의 사용을 크게 줄이고, 종이 박스의 종류를 줄여 적재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운송 시에 컨테이너나 트럭을 통합하여 운송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04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플라스틱 제품 패키지 및 쇼핑백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소재 (FSC® 인증 종이) 로 변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에코백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RE.UNIQLO

고객이 입지 않는 유니클로 옷을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부 나라에서 출시한 리사이클 다운 재킷은 수거한 다운 제품에서 추출한 솜털과 깃털을 100% 재활용하여 만듭니다. 옷에서 옷으로의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유니클로 남성 레귤러 피트 진 (68blue) 과 2018년 동일 제품 비교 데이터. 물 절감량은 제품별로 상이합니다.

RE.UNIQLO:Rebirth of Clothes

유니클로 옷의 새로운 여행

유니클로는 2006년부터 매장에서 고객이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수거하여 난민 등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RE. UNIQLO」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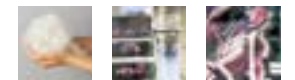
「RE. UNIQLO」는 난민 의류 지원 등의 재사용(REUSE)을 포함하여, 수거한 옷을 새로운 옷으로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순환형 리사이클(RECYCLE)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여분의 폐기물 및 온실가스배출량, 자원사용량을 줄이고(REDUCE) 있습니다.



RECYCLE / REUSE / REDUCE

옷에서 옷으로의 재활용

「RE. UNIQLO」는 옷에서 옷으로 재활용하는 첫 번째 활동으로 2020년 11월 일부 나라에서 리사이클다운 재킷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2019년부터 일본에서 수거한 62만 벌의 다운 제품에서 추출한 솜털과 깃털을 100%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2020년에는 23개 나라 및 지역에서 다운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 솜털과 깃털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의류 지원을 통한 재사용 / 연료 및 소재로 재활용

유니클로는 유엔난민기구(UNHCR) 등과 협력하여 75개 나라 및 관련 지역의 난민과 피난민 등에게 4,111만 벌의 의류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UNHCR과의 글로벌파트너십을 통해 연간 약 700만 벌의 의류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일본은 재사용이 어려운 옷을 고체연료 및 자동차용 방음재로 재활용하여 마지막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Product Innovations

지구를 생각하는 옷

패스트리테일링은 지속가능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 제품의 경우, 진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개발한 마무리 가공 공정에서의 물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모든 브랜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UNIQLO]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마르는 기능성 웨어 20 SS DRY-EX 플로셔츠는 원단의 32 ~ 75 %가, 20 FW 신제품인 남성용 플러피안 후리스 풀집 재킷은 원단의 30%가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입니다.*

2020년 11월 일부 나라에서 출시된 리사이클 다운 재킷은 고객으로부터 수거한 다운 제품의 솜털과 깃털을 100% 재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해당 소재는 2019년부터 일본에서 수거한 다운 재킷 62만 벌에서 추출했습니다. 리사이클 작업은 도레이사가 새롭게 개발한 자동화 분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작업 대비 약 50배의 처리용량으로 대규모 재활용과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분리 후 세척단계를 거치고 새것과 같은 수준의 세척 기준을 통과한 솜털과 깃털을 새로운 다운 제품의 소재로 재활용합니다.

* 일부 제품에 한하며, 사용률은 제품 및 색상별로 상이

[GU] 진 생산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생산단계를 재검토하고 물 사용량을 최대 96%* 절감했습니다(마무리 가공 공정). 테이퍼드 앵클 진을 시작으로 지유(GU)의 모든 진 제품에 이러한 가공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물 사용량에 비해 극히 일부의 물만 사용하면서도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오존 가스 세정과 나노 버블 세정이 가능한 워시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석 대신 장시간 재사용이 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에코스톤'을 사용하여 분쇄 폐기물을 없애고 세척에 필요한 물도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 GU 테이퍼드 앵클 진 마무리 가공 공정에서의 물 사용량을 기존 제품과 비교

[J Brand]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어진 J Brand는 Mid-Rise Super Skinny를 비롯한 프리미엄 진이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진 마무리 가공 공정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면과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Sport Meets Young Dreams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스포츠

유니클로와 스웨덴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가 2020년 10월, 청소년과 어린이의 미래를 응원하는 「DREAMPROJECT by UNIQLO」의 제1 회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스웨덴 올림픽 위원회 최고경영책임자, 피터 레이네보가 그 의미와 미래의 목표에 대해 설명합니다.



피터 레이네보 Peter Reinebo | 스웨덴 올림픽 위원회(SOC) 최고경영책임자
1980년대 스웨덴 휠체어 농구팀과 스웨덴 휠체어 여자 농구팀 코치를 역임했고, 이후 스웨덴 스포츠 교육 연구협회(SISU)에서 근무했습니다. 1995년부터 SOC에서 일하며 스포츠 디렉터를 거쳐 2013년 최고경영책임자로 취임했습니다. 소치 및 리우데자네이루, 평창 3개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었고, 평창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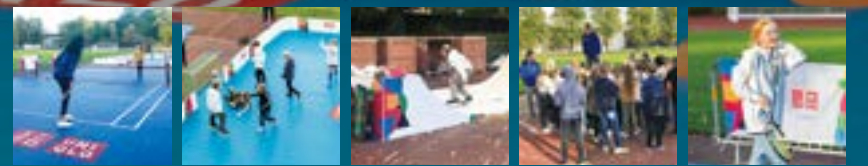
2019년 유니클로와 스웨덴 올림픽 위원회(SOC)는 스웨덴 올림픽·패럴림픽 대표팀의 메인 파트너 겸 선수복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니클로의 옷이 고품질, 혁신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스웨덴 선수들과 유니클로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유니클로 1호점이 문을 열었을 때도 갔었습니다.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 콘셉트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던하고, 품질 좋고, 다른 옷과 맞춰 입기 편하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웨어의 철학 자체가 지속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스웨덴에서도 인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높은 생활의 질과 공생(inclusion) 과도 연결되는 거겠죠. 공생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만, 되돌아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패럴림픽 대표 농구팀의 코치를 맡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패럴림픽은 특별한 행사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장애인 스포츠가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SOC의 중요한 업무가 올림픽의 가치인 '탁월함', '우정', '존중'의 정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유니클로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올림픽의 가치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 대해 배우고 직접 참여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살아있음의 의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DREAMPROJECT by UNIQLO」입니다. DREAM은 스포츠와 옷을 통해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든다는 공동의 꿈(Dream),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꿈(Dream)을 심어준다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1 회 이벤트에서는 초등학생과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키우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우정을 키웁니다. 스포츠는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성인의 3분의 1이 스포츠 클럽에 소속되어 매일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이나 게임에만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최고의 운동선수와 함께 스포츠를 즐긴 경험은 분명 평생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아이나 청소년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Helping Refugees Flourish

난민이 말하는 인생과 꿈

패스트리테일링은 유엔난민기구 (UNHCR) 의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난민은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에 정착한 난민 3명이 힘차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준 꿈과 교육에 대해 얘기합니다.

Maya Ghazal

마야 가잘

어린 시절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꿈과 희망이 있었고 가끔씩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시리아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전이 발생했고 갑자기 영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난민'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슬픈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난민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도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하고 시리아 난민 여성 최초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겠다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난민으로 경험한 일들은 이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UNHCR에서 High Profile Supporter로 일하며 난민이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과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난민도 모두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난민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패스트리테일링과 UNHCR의 활동

패스트리테일링은 UNHCR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보다 포괄적으로 세계의 난민 및 피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난민에 대한 의류 지원, 자립 지원, 고용, 긴급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의류의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한 옷을 나눠주고 있으며, 121명의 난민이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p17, p25, p33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r Duany

게르 두에이니

'난민 출신, 배우, 모델, 작가, 활동가.'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직함을 얻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고향인 수단을 떠나 에티오피아와 케냐 등의 난민 캠프를 전전하다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후에는 난민을 주제로 한 영화에 출연했고 모델로도 활동했으며 난민으로 살아온 인생에 대한 책 「Walk Toward the Rising Sun」도 집필했습니다. 현재는 난민을 돕기 위해 UNHCR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전을 피해 찾아간 난민 캠프에서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연필이나 공책도 없었고, 배가 고파서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난민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의 꿈과 희망은 난민이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난민 캠프를 기능적인 마을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남수단의 아코보로 돌아가 난민으로서 고향의 재건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m Mang

램 망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해주신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열이 높았던 부모님은 '남겨줄 재산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96년 고국 미얀마의 탄압을 피해 혼자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를 못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UNHCR의 난민고등교육 프로그램 (RHEP)을 통해 간사이학원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통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어머니가 병이 났을 때는 공익재단법인 아시아복지재단 난민사업본부에서 일본 체류 연장 절차를 도와준 덕분에 어머니가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아시아복지재단에서 통역과 난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당연한 문화나 환경이 난민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시청에 동행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대화만 통역하지 않고 항상 눈을 보면서 상대방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의사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과 이해가 보다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국에 기여하는 것이 꿈입니다.



Giving Back to the World

세계로 확대되는 사회공헌활동

패스트리테일링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더 좋은 사회를 바라는 고객과 함께하며, 사회와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41,272명

「옷의 힘 프로젝트」는 전세계 난민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옷을 모아서 전달하는 교육활동입니다. 유니클로와 지유(GU)의 직원들이 일본 각지의 초·중·고등학교를 돌며 활동을 소개했고, 2020년에는 315개 학교에서 약 3만 명의 학생이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시즈오카 대학과 함께 아마미오 섬의 학교를 포함하여 총 5개 학교에 첫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유니클로 대만은 시의 문화예술재단과 함께 매장에서 직업체험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75개 나라 및 지역에 의류 지원

북미 및 중남미
미국 / 브라질 / 아이티 / 콜롬비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170,357명

유니클로 한국은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뇌성마비 장애인 800명에게 개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춘 리폼 의류 약 4000벌을 지원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라위
모리타니/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긴급재난 지원

지원대상: 1,196,296명
(코로나 19 관련 지원 포함)

2020년 11월 필리핀의 태풍 고니와 밤고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리테일링은 100만 달러(약 1억 400만 엔)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태풍에 따른 호우의 영향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 가옥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부금은 SM 재단을 통해 이재민의 긴급식량지원, 침수 가옥 재건, 하천 범람 방지 인프라 공사 등에 사용됩니다. 61개 매장(2020년 11월 말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유니클로 필리핀은 에어리즘 마스크 30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SM 재단을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에게 전달됩니다.



난민지원

지원대상: 944,301명

유니클로와 지유(GU)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하여 리사이클 활동을 통해 수거한 옷을 난민과 피난민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6월에는 유니클로 일본의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된 유아제품 판매 금액 중 1,000만 엔을 UNHCR에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민 가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라민 유니클로 사업

매장수: 16개 매장

그라민 유니클로는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든 단계가 이루어지며 모든 수익은 방글라데시의 사회문제 해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라민 유니클로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16개 매장을 운영하며 (2020년 12월 말 기준) 고용 창출 및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여성이 경력을 쌓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 직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공장의 직원에 대해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

윤리적인 기업지배구조

패스트리테일링은 신속하고 투명한 경영체제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내부통제구조를 강화하여
실현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2020년 11월 27일 기준)



이사회와 기능 강화

이사회는 경영의 기본방침 및 경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의사결정기능] 사업 활동이 글로벌화되고 사업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광범위한 문제에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논의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대규모 재해나 정보 보안 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및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감독기능] 9명의 이사 중 5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로 경영 역량을 보여준 인물, M&A 분야나 재무경영 전문가로 활약한 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견이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구조 강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활동은 내부통제구조의 일부로 건전한 기업활동의 토대가 됩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직원의 행동규범이 되는 패스트리테일링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매년 e-러닝을 받도록 하여 행동강령의 학습 및 준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 「윤리적인 기업지배구조(거버넌스)」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구조의 상세 정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보고서 등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astretailing.com/eng/sustainability/governance/



HELMUT LANG

COMPTOIR DES COTONNIERS



PRINCESSE tam·tam

J BRAND





2001년 아프리카니스탄 난민에게 유니클로의 옷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난민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ustainability Report 2021」에서 소개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옷을 만들고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Fast Retailing Sustainability Report 2021

[편집 방침]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에서 발행한 본 책자는 자사의 사업활동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근거하여, 기업의 정책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 범위]

원칙적으로 패스트리테일링(한국/해외 사업본부)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대상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2019년 9월 ~ 2020년 8월

※ 본 책자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회계연도의 실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요 보고사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신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행]

2021년 2월 (다음 호는 2022년 2월 예정)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은 자사의 공식 사이트에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기업 정보, IR 정보 등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 (지속가능성)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astretailing.com/eng/sustainability/

유니클로 (지속가능성)



유니클로의 활동 및 본 보고서, 그 외 관련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uniqlo.com/kr/sustainability/

글 작성 : 마츠이 마사시(松家仁之) (P6-13), 스에오카 요코(末岡洋子) (P28-29), 신가와 료(新川諒) (P30-31)

그 외의 내용은 패스트리테일링 작성

사 진 : KINYA(표지, P6-15, P26-27),

©UNHCR/Andrew McConnell, ell (P30-31) ©UNHCR/Dominic Nahr (P31 상단)

일러스트 : 고바야시 란(小林ラン) (P20)

감 수 : alterna 편집부 (P18-19)

[면책사항]

본 책자는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과 계열사의 과거 및 현재의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발행 시점의 계획 및 전망, 경영방침, 경영전략에 근거한 미래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작성 시점에서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가설 또는 판단이며, 여러 조건에 따라 향후 사업 활동 및 상황이 예측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본 책자는 FSC® 인증 용지와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